10강 지식인의 고독과 절망

(1교시)

■ 지식인, 스스로 고독을 산다는 것

※ 학습목표
『술집에서』와 『고독한 사람』에 나타나는 지식인의 슬픔을 이해한다

▲ 지식인 최후의 자존심, '쓸데 없는 일'
루쉰의 지식인인 리엔수는 변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히 조롱하고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고, 『술집에서』의 지식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자각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견딘다. 술집에서 그들의 말은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독백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일'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만 쓸데없는 일이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소박하게 한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예전에 품었던 큰 뜻, 즉 세상을 바꾸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었으며 출세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일관되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이라면, 대의를 위한 일, 명분을 위한 일이라고 했을 일들을 그들은 이제 깊이 절망하여 자조적으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버릴 수 없는 최후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 『고독한 사람』의 리엔수와 나의 관계
리엔수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우리들과는 전혀 딴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고독한 리엔수와 교류하고 있는 '나'는 그 무렵 일이 없었으므로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 자이다. 리엔수와 나의 교류는 마을 사람들과는 공감할 수 없는 '지식인'들만의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것 속에서 유지된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내가 본 리엔수의 통곡은 고독을 공유한 자에 대한 장송이자 공감의 표현이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일생이 눈앞에 떠올랐소. 스스로 고독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씹어 삼켜온 인간의 일생을 말이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고 느꼈소.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곡하게 하였던 거요..."* 리엔수가 고독한 자를 알아본 것은 그 역시 고독한 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0강 지식인의 고독과 절망

(2교시)

■ 지식인의 절망과 희망을 잃은 아이들

※ 학습목표
『고독한 사람』의 리엔수의 변절과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고독한 사람』, 리엔수의 절망의 끝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누에집'을 짓고 살던 리엔수. 그러한 그에게도 생활의 문제는 심상하게 넘겨버릴 수 없는 근본적인 것이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리엔수는 자신이 갖고 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전향'한다. 리엔수는 자신이 이전에 증오했고 반대했던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지식인들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에게는 그마저 사라진다. 리엔수는 절망의 끝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자신이 살고 있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몸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다.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본 자만이 그 반동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 희망 없는 아이들
"그 분은 이전에는 아이들을 무서워하여 언제고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하였는데, 근자에는 아주 딴판으로 말도 잘하고 잘 떠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 분과 노는 것을 좋아했고... 아이들이 무얼 사달라고 하면 개 짖는 흉내를 내라고 한다든지, 머리를 방바닥에 부딪쳐서 소리가 나도록 절을 시킨다든지 했어요."
리엔수는 아이들을 더 이상 좋아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아이들은 희망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리엔수 자신의 삶과 희망을 조롱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루쉰에게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 미래의 희망. 노쇠한 것에 대비되며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하지만 구습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면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한다는 것을 목격한 후, 단순히 제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터이다. 『고독한 사람』에서 리엔수가 아이들에게 개 짖는 흉내를 내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절을 시키는 등의 행위는 아이들의 '노예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리엔수의 변절
그의 모습은 어설픈 희망을 믿지 않고 절망을 끝까지 절망하면서 사는 자의 모습에 가깝다. 그러므로 루쉰의 절망은 희망의 반대 이상이다. 온전히 끝까지 절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부정의 반성적 태도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쉰의 절망은 암흑, 혹은 어둠이지만 그것은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것으로서의 어둠이고 암흑이다. 암흑이지만 암흑이 아닌 것, 혹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불명불암의 세계, 희망도 절망도 아닌 공허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정해진 이름도, 정해진 길도 없이 길을 가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